

중앙회 2020년도 제1차 이사회 개최

무강왕릉 수호보전 및 대응방안 등 의결

무강왕릉 발굴 시 출토된 무왕의 인골이라 주장하는 익산시의 인골 봉안행사 강력저지, 세일재 및 관리사 보수, 화장실 증개축, 뿌리와 인명록 발간사업 등 추진

중앙총친회(회장 추태)는 지난 7월 15일 중앙총친회 회의실에서 추태회장을 비롯 선교감사, 연동, 동수, 태락, 상기부회장 등 위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서면결의로 대체된 금년도 정기총회의 예산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한 후 익산시의 무강왕릉 인골 재봉안행사에 대한 대응 방안과 세일재 및 관리사, 화장실의 증개축 보수, 뿌리와 인명록 발간사업 등 종사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를 통해 관련의안을 확정 의결하였다.

추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중요한 종사의 현안논의를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게 됨을 밝히고 원근거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많이 참석해 주신 회장단 및 임원분들께 감사인사와 함께 부득이 정기총회를 서면으로 대체하게 됨에 대한 양해를 전한 후 무강왕릉의 수호보전, 세일재 및 관리사 지붕의 보수와 화장실 증개축 추진, 뿌리와 인명록 발간 등 주요종사 추진현황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경제적, 사회적인 제반 상황과 여건 등으로 추진 이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이를 원만히 해결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회장단과 임원분을 중심으로 전국의 많은 종원분들께서도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을 위해 협조와 홍보, 독려를 재차 강조하고 당부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를 통해 익산시에서 추진하는 무강왕릉 발굴당시 출토되었다는 인골의 재봉안식 행사에 대한 대응 및 추진방안은 집행부에 위임하였으며, 집행부는 대왕릉 발굴 시 출토되었다는 인골은 신빙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백제 무왕의



이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추태중앙회장

인골이라 주장하는 익산시의 인골 재봉안 및 봉안식 행사는 절대 반대하고 강력 저지기로 하였으며 봉안행사 개최 시 무강왕의 명정 및 지식 등을 봉안하기로 결의

하는 한편 익산시에도 무강왕과 관련된 행사와 내용은 청주한문과 사전 협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기로 하였다.

확대 회장단회의 개최

무강왕릉에 인골 재봉안 강력 저지 재천명



확대 회장단회의(평간공문중)

중앙총친회(회장 추태)는 코로나19의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종사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차질 없는 추진 도모를 목적으로 지난 8월 7일 평간공파문중(회장 태교) 및 예하문중, 8월 10일 서원군파문중(회장 길수) 및 예하 문중, 8월 12일 광역시도회장(위원장 갑수) 및 기타문중 등 3회로 구분하여 확대 회장단회의를 개최하였다.

추태회장은 회의를 통해 무강왕릉에서 출토된 무왕의 인골이라 주장하고 짜 맞추기식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익산시의 인골 재봉안을 강력하게 저지할 것임을 재천명하고 청주한문의 전종원이 한 뜻으로 힘을 모아 대응할 수 있도록 회장단의 협조와 독려를 당부하는 한편 뿌리와 인명록의 발간, 세일재 및 관리사 지붕보수 및 화장실의 증개축 등 종사 추진과업 수행에도 적극적인 성원을 재차 당부하였으며 참석한 회장단은 차질 없는 종사운영을 위해 중앙회를 중심으로 단합하고 성원할 것을 결의하였다.

2020년도 정기총회 서면결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의결

중앙총친회(회장 추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중진원로 및 회장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간 수차 연기된 2020년도 정기총회를 부득이 서면으로 대체하여 결의하였다.

이를 통해 2019년도 종사의 주요현황과 인터넷족보, 장학재단 운영, 무강왕릉 수호를 위한 업무 추진사항 등 주요종사운영에 관한 사항과 전기 및 차기이월급 포함 1억 7,438만원의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감사보고서,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안) 및 전년도 예산대비 8,100만원이 증액된 3억 2,600만원 규모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의 없이 승인 채택하였다.

2020년도 예산(안)은 세일재 및 관리사의 지붕 보수비 1억원, 무강왕릉 수호보전 대책기금 4천만원과 뿌리와 인명록 발간사업비 등이 편성되었으며 그 외 항목은 현실성을 고려하여 현상유지 또는 감축 편성하였다.

익산시, 무강왕릉 인골 재봉안 없이 원형대로 복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청주한문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 성원해 주신 성과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더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재)청한장학회, 제20회 장학증서 수여

100명의 후손에게 8,300만원... 1999년 10월 설립 후 1,122명에 10억 9,850만원

명문 청주한문 후예의 긍지로 정진 노력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기를... 우동이사장, 장학생들에게 서면으로 격려

(재)청한장학회는 2020년도 제20회 장학생 100명(대학원생 2명, 대학생 64명, 고등학생 34명)을 선발 총 8,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으로 수여식 행사는 생략함)

우동이사장은 서면을 통해 선발된 장학생에게 축하와 함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부득이 장학증서 수여식을 서면으로 대체함에 아쉬움을 표한 후 명문 청주한문의 후예로서 훌륭한 선조님의 긍지를 이어받아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정진노력해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한문을 더욱 빛내주길 바란다 고 격려했다.

청주한문의 시조이신 위양공부군은



전년도 장학증서 수여식 자료사진

1,000여 년 전에 충북 영동군 황간면 난곡리에서 태어나셨고 큰 뜻을 품고 청주지역으로 이주하여 용개 뜰을 개척하고 무

농정을 세워 영농을 권장하고 향학을 일으키셨으며 서기 928년 고려태조 왕건이 후백제의 견훤을 정벌하기 위해 청주지역

을 지날 때 10만 병사에게 군량미와 음용수를 제공하고 몸소 출정하여 삼한통합에 큰 공을 세우신 분이다.

이에 문하태위(국무총리급)의 벼슬에 올랐고 삼중대광개국백상공신에 녹훈되었으며, 청주라는 본관을 부여받았다.

중앙총친회를 모태로 지난 1999년 10월 29일 설립된 (재)청한장학회는 단위장학회 제도를 도입하여 장학기금을 출연한 21개 단위장학회가 약 21억원, 중앙회 및 각 시도와 개인적으로 출연한 기금 약 12억원을 합쳐 33억원의 목적사업부분의 기금과 우동이사장이 출연한 부동산, 현금 약 58억원의 수익사업부분의 기금 등 91억원의 장학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제20회까지 대학원생 41명, 대학생 725명, 고등학생 356명 등 총 1,122명에게 10억 9,850만원을 목적사업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2020년도 장학생(중앙총친회)

단위장학회 광역시·도	장학생	학교명	단위장학회 광역시·도	장학생	학교명
중앙회	한재호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학년	성호공	한호민	삼괴고등학교 1학년
	안태준	능곡고등학교 2학년		박일안	청북고등학교 1학년
	최재원	인천대인고등학교 1학년	청암공	한민철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3학년
	한승재	서울공항공고등학교 1학년		한송림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
	김정혁	문산제일고등학교 1학년	회양공	한지혁	서울대학교 의학과 1학년
	한수빈	삼괴고등학교 1학년	대구경북	한도연	대림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과 3학년
세마공	한은별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 3학년	교위공	임해린	숙명여자대학교 화학과 2학년
	한운서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1학년	서범공	한주연	청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3학년
	성시현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과 1학년		한수정	경북대학교 섬유패션디자인학과 1학년
	한병석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반도체전자과 1학년	충정공	한정규	아주대학교 응용화학생명공학과 3학년
	한지우	영동일고등학교 3학년	청파공	한영규	한국과학기술원 프로페셔널MBA 2학년
	한기창	고림고등학교 1학년	낙안공	한민석	조선대학교 경영학부 1학년
시외공	한승욱	경기대학교 언론미디어학과 4학년	이원공	강현경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2학년
	김재훈	가천대학교 체육학과 4학년	부산시	한가은	경상대학교 지역환경기반학과 2학년
	박보서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 3학년	상언공	한창희	전북대학교대학원 치의학과 1학년
	권순빈	전남대학교 의예과 1학년	충성공	한승표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3학년
광천공	신보경	호서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부 2학년	서울시	김이건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1학년
	한란주	진선여자고등학교 1학년		한상빈	휘문고등학교 1학년
	김 옥	천안청수고등학교 2학년		민예진	진명여자고등학교 2학년
판관공	한진희	대경대학교 헤어디자인학과 1학년	경기도	한경은	수원대학교 경영학부 1학년
	한지원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1학년		한 결	배명고등학교 2학년
	한정운	백석문화대학교 실용음악학부 2학년	전북도	한가희	충북대학교 간호학과 1학년
감사공	한택희	호서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부 4학년	대전시	곽남혁	대구가톨릭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2학년
국산공	김동윤	가톨릭관동대학교 전자공학과 3학년		박진희	중일고등학교 3학년
	한승희	금곡여자고등학교 2학년	경남도	한성민	마산공업고등학교 3학년
성호공	한지현	호매실고등학교 3학년	이양공	한태빈	안남고등학교 2학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청주한씨 역사공원



청주한씨 시조제단비 (운동동 369-6, 충북 유형문화재 제169호)

청주시는 동남지구 운동동에 청주한씨 시조제단비를 중심으로 청주한씨 역사공원을 조성하였다.

청주한씨 역사공원은 시조제단비를 중심으로 한 역사의 마당과 좌측에 정자원, 우측에는 문화의 쉼터, 뒤편으로 숲속 산책로 등으로 조성되었다.

청주한씨 시조제단비는 청주를 본관으로 하는 대표적인 씨족인 청주한씨 시조(휘 蘭)를 제사하기 위하여 유적지에 제단을 마련하고 후손들이 이 터를 기억하도록 세운 사적비로 1605년 청주목사 겸 청주진병마절제사로 부임한 한백겸(韓百謙)선조가 시조의 유적을 고증하여 찾고, 동생인 이조참판 한준겸(韓浚謙)선조가 시조의 내력을 상세히 서술한 비문을 지었으며 비문에는 당시 시조부군의 유기(遺基)를 찾아 위토(位土)를 마련하고 제단을 쌓아 담을 둘러 경계를 표시하였음

을 알 수 있다.

17세기 역사지리학의 대가에 의해 옛 유허(遺墟)가 고증되어 세워진 비석이란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청주한씨 시조제단비는 1990년 12월 14일 충북 유형문화재 제169호로 지정되었다.



문정공 배위 정경부인 함양여씨(咸陽呂氏) 불천위(不遷位)제 봉사

성남시 분당구 율동 문정사(文靖祠)에서

지난 7월 5일 (음 5월 15일) 30여명의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분당구 율동에 소재한 문정사(文靖祠)에서 문정공(諱 繼禧)의 배위이신 정경부인 함양여씨(貞敬夫人 咸陽呂氏)의 565주기 기신제(忌辰祭)를 경건하게 봉행하였다.

「초헌관 동춘일가, 아헌관 태구일가, 종헌관 병철삼등공파회장, 축관 동훈부회장, 잡례 종호(전)영흥공파회장, 안내 및 접수 성익총무」

석구회장은 전임 회장과 총무에게 공로패를 수여한 후 인사말을 통해 참석해 주신 일가분들께 감사의 전하고 종중 토지에 대한 수용 경과 등 종사 현안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문정공의 배위이신 정경부인 함양여씨는 문정공부군께서 근검절약(勤儉節約)과 제민구휼(濟民救恤)정신으로 녹봉은 물론 공신전 등에서 들어오는 수익도 일체 사



용하지 아니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 한(韓)정승이 사시는 곳인 고암리에 가면 굶주리지 않는다는 세간의 전함으로 후일에 안암동이라는 지명으로 바뀌는데 크게 일조하신 분이시다.

문정공부군께서는 임금을 잘못 모시어 백성들은 하루 한 끼도 못 먹어 굶어죽는 자가 속출하는 시절에 어찌 내가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으랴 하시고는 아침에는 서숙밥(조밥)과 저녁에는 서숙죽(좁쌀죽)

을 잡수시면서 점심은 황경나무 껍질을 씹는 것으로 대신하셨다하니 할아버님의 심경을 이해하시면서도 할머니의 마음은 오죽 황당하셨을까!

정승의 반열에 계시면서 청백리(淸白吏)의 도리를 잊지 않고 몸소 실천하신 할아버님으로 인하여 가난을 면치 못 하시면서도 네 분의 자식들에게 군자의 도리를 바르게 가르쳐 훗날 부끄러운 오명 없이 훌륭한 선비정신으로 자기 개혁을 한 분들로 명성을 남기게 키우신 오후하면서 도 법도를 제일의 덕목으로 실행하신 선구자적인 맹렬 여성이셨다.

그러한 할머니 덕에 문정공께서는 졸기(卒記)에 성인의 반열의 인물로 평가받은 신 조선왕조 상신중에 유일한 분으로 추모되고 있는 것이다.

(문정공파성익총무, 동억고문)

인천광역시종친회 제52회 정기총회 개최

전년도 결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승인



추태중앙회장의 축사

인천광역시종친회(회장 천식)는 지난 7월 25일 추태중앙회장과 기전, 창설교문을 비롯 임원과 종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미추홀구소재 송의가든에서 제52회(202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전년도 결산보고와 신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한 후 종사현안에 대한 설명과 논의를 하였다.

천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이 지속되는 어려움으로 부득이 정기총회를 연기하여 개최하게 됨에 양해를 구하고 어려운 여건하에서 특별히 참석해주신 추태중앙회장과 임원 및 일가분들께 감사의 전한 후 종친회의 발전을 위해 초심의 의지로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종원분들이 화합하고 힘을 모아 성원해 주시고 더 많은 관심으로 종친회를 사랑해 줄 것을 독려하고

당부하였다.

추태회장은 축사를 통해 50여년의 역사를 이어온 인천시종친회는 가장 모범적으로 훌륭하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중앙회에도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므로 종사운영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전하며 훌륭하게 종사를 이끌어 주시는 천식회장과 임원 및 종원분들을 치하하고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하였다.

기전고문은 청주한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성씨이며 자타가 공인하는 삼한갑족이자 명문거족이다.

자랑스러운 청주한문의 후예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명성에 걸맞도록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로 존경받는 청주한문의 명예를 이어나가자고 격려했다.

(인천종친회 사무처장 회숙)



광역시·도 회장단협의회의 개최

현안 논의 및 명승지 등 탐방

전국 광역시·도 회장단협의회(회장 갑수)는 지난 6월 9일 중앙회 추태회장과 갑수회장을 비롯하여 동경, 태락, 광전, 명수, 격동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회장 만준) 마산에서 2020년도 제2차 협의회의를 개최하였다.

종사 현안을 비롯해 관심 사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앞으로도 더욱 화합 단결하고, 전국의 많은 종원분들이 종사운영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을 위해 독려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으며 추태회장은 종사현안을 설명하고 원만히 성취될 수 있도록 지역회장단을 중심으로 많은 동참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회의와 식사 후 만준회장의 안내로 지역 명승지를 관광하는 등 시종 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자기 회의는 제주지역에서 개최기로 결의하고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청주한씨보」는 한씨일가들의 갖가지 정보를 전하는 소식지입니다. 따라서 많은 정보가 게재될수록 유익한 좋은 소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각 종파와 각 지역종친회의 행사, 임원 교체 등 인사동정, 한씨에 얽힌 정보, 일가들의 선행과 효행 등에 관한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기사에는 관련 인사들의 이름, 행사일과 장소, 행사내용 및 동정(動靜)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관련 사진도 함께 행사가 끝나는 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보 편집실)

結婚興行 쇼



韓吉洙

(詩人·隨筆家·西原君派會長)

익산시는 시내 석왕동에 소재한 익산쌍릉(사적 제87호)에 잠들고 있는 주인공을 역사서도 아닌 관세음응험기의 내용을 인용하여 백제의 무왕과 선화공주의 능으로 둔갑시켰다. 그러나 이 쌍릉은 馬韓의 始祖이신 무강왕과 왕비의 능임이 분명하다

해마다 벼가 고개를 숙이는 가을이 되면 이 나라 국창지대인 호남의 들머리 益山市에서는 舉市的인 축제가 벌어진다. 백제의 서동인 무왕과 신라 선화공주의 결혼행사 축제이다. 이를 계기로 익산시와 경주시는 자매관계를 맺고 매년 익산시에서는 서동(무왕)을 선발하고 경주시에서는 선화공주를 선발하여 익산시로 시집보내면서 많은 관객이 참여를 하여 함께 잔치를 벌인다. 익산에서 선발한 맛 동방인 무왕과 신라의 선화공주가 혼례를 치르는데 이것이 하나의 관광 상품화 하여 구경꾼들을 불러 모으는 익산시에서는 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키우고 있다.

이 흥행 잔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익산시와 맛 동방 즉 무왕과의 연관 고리가 있어야 하는데 익산시는 시내 석왕동에 소재한 익산쌍릉(사적 제87호)에 잠들고 있는 주인공을 역사서도 아닌 관세음응험기의 내용을 인용하여 백제의 무왕과 선화공주의 능으로 둔갑시켰다.

그러나 이 쌍릉은 馬韓의 始祖이신 무강왕과 왕비의 능임이 분명하다.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서는 잠시 역사공부를 하여야 하는데 멀리 단군조선을 이은 기자조선에 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愛民如子の 施政을 펼치신 箕子 聖祖께서 平壤城에 개국하시니 이를 箕子朝鮮이라 한다. 이 朝鮮이 929동안 이어오다가 기원전 194년 41代 哀王(諱 準)代에 은혜를 모르고 배반한 燕의 衛滿에게 나라를 내주고 배로 南下하여 지금의 익산시 금마에 馬韓을 개국하니 武康王(諱 準)이다.

위만조선에 대해서는 사마천의《史記》와 반고의《漢書》에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위만은 옛날 연나라 사람으로 요동 일대로 망명하였다가 다시 무리 천여 명을 모아 동쪽으로 도망하여 準王의 外臣으로 있었다가 반란을 일으켜서 위만조선을 세웠다.

【輿地勝覽】에 이르기를 [秦始皇 27년 辛巳(B.C 220년)에 箕子朝鮮의 準(武康王, 哀王)이 왕위에 올랐으나 漢 惠帝 원년 丁未(B.C 194년)에 燕나라 사람 衛滿이 침략해서 왕검성(관미성)을 빼앗자 준왕이 左右宮人을 거느리고 배를 타고 金馬郡에 도읍을 세우고 국호를 고쳐 馬韓이라 했다.]

安鼎福의 東史綱目에 의하면 [馬韓은 1世 武康王(箕準)부터 10世 學王까지 211년(202년)을 繼承했다. 馬韓의 초대 임금은 衛滿세력으로부터 뗀쳐온 準王 즉 武康王이요, 제8대 元王의 諱는 勳이다. 癸亥(B.C 58년)에 왕위에 올라 재위는 26년이다. 元王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맏이는 友平으로 北原 鮮于氏라 하고 둘째는 友諒으로 上

黨 韓氏라 칭하였으며 마지막은 德陽 奇氏라 칭하여 分姓하였다. 마한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한반도에 있던 三韓 중 가장 큰 정치 집단으로, 서쪽은 서해에 접하고, 동쪽은 辰韓, 남쪽은 弁韓에 접해 있었으며 54개국의 지역적 연합체를 이루고 있었다. 이 마한의 54개 부족국가로는 경기도·충청도·전라도에 해당하며, 그 외에도 강원도 서부와 황해도 남부까지를 세력권으로 한 광대한 지역이었으며 마한의 54개국 중 주요국가로는 乾馬國. 目支國(月支國). 伯濟國이 있었다.]

箕準王이 建國한 馬韓國이 대한민국 정통 역사가 되었으며 益山의 金馬에 遷都하여 金馬渚라 칭하였는데 최근에 발굴된 성안에서는 왕궁평성, 金馬渚城, 上部大官 銘의 기와 쪽이 출토되어 미륵산성, 왕궁평성, 그리고 우금산성과 같은 때의 성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사적 제87호인 이 쌍릉이 백제 무왕과 선화공주의 무덤이 아니고 마한의 무강왕과 그 비의 능이라고 하는지 그 근거를 소상하게 제시하겠다.

■ 익산 쌍릉은 이미 고려사절요와 이승휴의 제왕운기에 엄연히 무강왕과 왕비의 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청주 한 씨와 태원 선우 씨 덕양 기 씨 등 3성이 합동으로 까마득한 옛날부터 매년 음 3월 15일에 이 쌍릉에 제사를 모셔왔으며 1957년 2월 23일 익산군 팔봉면장이 발굴한 묘적증명에서도 청주한씨 시조 묘라는 증명을 해준바 있고 능이 있는 토지 42,300평의 소유권도 한씨들이 연명으로 공동등기를 하여 한 씨들의 소유로 되어 있었다.

■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장을 하던 이병호박사가 쓴 “내가 사랑한 백제”와 김명환교수의 논문 “사적 제87호 익산 쌍릉에 대한 연구논고”외에 제주대학교 안창범교수 등 저명한 학자들이 이 익산 쌍릉은 무강왕과 그 왕비능이 틀림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서동은 백제 27대 위덕왕의 아들 혹은 29대 법왕의 서자로 기록되는 등 태생의 출처도 명확하지 않은 맛 동방인 서동은 무슨 사유로 사비(부여)의 구중궁궐을 빠져 나와 하필 이곳 금마까지 흘러와서 마를 팔아 생계를 이어나 할 정도로 가난하고 구차하게 살았느냐? 더구나 그의 모친은 위덕왕 또는 법왕의 왕비인데 왕궁을 버리고 이곳에 와서 아들과 같이 구걸하면서 가난하고 천하게 산 이유는 무엇인가?

■ 지금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같은 국내도 아닌데 신라라는 적국에 진평왕의 셋째 딸인 공주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으며 또 예쁘다는 것은 어떻게 귀신같이 알았느냐?

■ 백제는 적국인 신라와의 싸움에서 성왕이 戰死하고 좌평 4명과 병력 29,600명이 전사한 관산성 전투가 치열했던 살벌한 시기에 적국의 국경을 넘어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데 서동은 대마불사인지 어떻게 서라벌에 들어가서 마를 케어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며 양국 간에 언어가 다룰 수도 있는데 〈선화 공주님은 남 몰래 사귀어 두고, 서동 도련님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공주를 꼬여 낼 수가 있었느냐? 그리고 신라 진평왕은 어떻게 애지중지 기른 자기 딸을 누구인지도 모르는 비렁뱅이에게 보낼 수가 있느냐? 왕이 아니고 평민인 필자라도 절대로 딸을 그런 뜨내기에게 내어주지 않는다.

■ 600년 先王인 법왕이 죽은 후 뒤를 이어 백제 30대 왕으로 즉위한 무왕이 자기 처가인 신라를 여느 때와 다르게 12회나 각을 세워 공격을 하는 등 치열한 전투를 했는데 이는 선화공주의 입장이나 장인 장모를 생각해서라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이 아니다.

신라와의 전쟁 중 큰 전쟁

* 602년 신라 아막산성을 공격했으나 패배 * 611년 가잠성을 공격하여 승리

* 616년 신라 모산 성을 공격했으나 패배 * 623년 신라 늑노현을 침범

* 633년 신라 서곡성을 점령 * 636년 신라 독산성을 습격했으나 패배

■ 왕위에 오른 무왕이 죽었을 때 사비부근의 집단 능역인 능산리나 그 부근의 야산에 묻혀 있어야할 무왕의 시신이 사비(부여)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까지 옮겨 이곳에다 매장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 왕비의 시신까지 운구했다는 사실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 부여의 궁남지 일대에는 서동과 선화공주가 만나 사랑 놀음을 했다는 유적이 있는데 이곳과 중복이 되는 설화가 그곳에도 있으니 어느 것이 참 내용인가?

■ 결국에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

일연의 〈삼국유사〉에는 서동 출신 무왕과 신라 선화공주의 이야기 서동설화가 나온다. 그러나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해체 중 금동사리함 명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일연의 삼국유사를 기반으로 한 미륵사 창건이 선화공주가 중심이 됐다는 설이 지배적이었지만 최근 미륵사지 석탑 준공 당시 무왕의 왕비는 선화 공주가 아닌 사택 왕후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선화 공주와의 결혼이 후대에 꾸며진 허구라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그러자 익산시에서는 사택왕비는 선화공주가 사망한 뒤에 재취한 왕비라고 주장을 바꾸고 있으니 얼마나 낮간지러운 이야기인지.

■ 일부 학자들이 관세음응험기의 내용에 따라 이 능을 백제의 무왕과 선화공주의 능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아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백제 30대 왕인 무왕은 백제 마지막왕인 의자왕의 부왕으로 29대 왕인 법왕의 자라고도 하고 일설에는 27대 위덕왕의 자라고도 하며 과부가 용왕과 교통하여 출생했다고 하는 등 설이 많다. 더구나 전남대의 임영진 교수는 무왕은 온조왕계가 아닌 마한계통의 家系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데 지금 황사가 낀 하늘처럼 흐릿하고 선명치 못한 것이 사실이다.

2009년 1월 14일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미륵사지 서탑을 해체 정비하다가 心柱 위쪽 중앙의 사리 공에서 금제 사리 호. 금제사리 봉안기 등 사리장엄을 발견하였다 작은 병인 금제 사리 호를 X선으로 내부부를 투시한 결과 내외함이 2중 구조로 이뤄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리 호 표면의 다양한 문양과 세공기법은 백제 금속공예의 우수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작품이었다.

금제 사리 봉안기는 가로 15.5cm, 세로 10.5cm 넓이의 금판에 음각하고 붉은 칠을 해 글씨가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했다. 여기에는 백제 왕후가 淨財를 회사해서 가람을 창건하고 기해년(639년)에 사리를 봉안하여 왕실의 안녕을 기원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는 미륵사의 창건 목적과 施主, 석탑의 건립연대를 정확히 밝혀주는 귀중한 금석문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금제 봉안기에는 시주자인 왕후가 백제 8대 귀족 중 하나인 沙宅씨의 딸로 기록되어 있어 선화공주가 미륵사를 조성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과 차이가 있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는다. 선화공주 이야기는 허구라는 사실이 확연하게 들어나는 대목이다.

좀 장황하지만 당시 왕비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는데 참고가 될까하여 봉안기를 옮겨보았다.

이 왕릉은 고려 충숙왕 16년 3월 도굴당한바 있으며 2번째로 1917년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주관으로 일본

〈5면에 계속〉



무강왕릉의 옛모습(석수, 장명등, 상석등 석물이 있다)

〈4면에 이어〉

인 야쓰이 세이이치라는 학자가 이 능을 발굴한바 내부에 아무것도 없고 다만 여자 어금니치아가 있었다는 보고서가 남아 있다.

그런데 익산시가 원광대학의 마한백제문화연구소장 최완규 교수에게 용역을 주어 3번째로 발굴토록 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여자 이만 있었다는 곳에서 느닷없이 사람의 뼈 102개가 들어 있는 나무상자가 나왔다고 떠들고 있으니 기가 찰 이야기이다.

도대체 2번째 발굴당시에 없었던 뼈가 나무상자에 담아서 있었다고 하니 이걸 누가 믿고 신뢰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다. 어느 개뼈다귀인지 어디에서 누가 갖다가 집어넣은 것인지 도대체 이를 확인하고 믿을 만한 단서가 없다.

이 엉터리 뼈를 놓고 2018. 7. 18. 11:10 높이신 학자들이 회의를 했다고 한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7세기 사망한 큰 키의 노년기 남성” 인골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는 내용이다.

“쌍릉의 존재는「고려사」에서 처음 확인되며, 고려 충숙왕 때(1327년) 도굴되었다는 사건기록도 남아 있다. 당시부터 고조선 준왕이나 백제 무왕의 능이라는 설이 있었다. 1917년 조선총독부는 쌍릉을 단 며칠 만에 발굴하면서 1920년 고적조사보고서에 단 13줄의 내용과 2장의 사진, 2장의 도면만 공식기록을 전부로 남겨놓았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지난해 8월부터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의 하나로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익산시와 공동으로 쌍릉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석실 끝부분에서 여태까지 그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던 인골 조각이 담긴 나무상자를 발견했다. 100년 전 일제가 발굴하면서 다른 유물들은 유출했지만, 이는 꺼내 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나이는 최소 50대 이상의 60~70대 노년층으로 봐도 큰 무리가 없다. 목의 율대뼈가 있는 갑상연골에 골화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골반 뼈 결합면의 표면이 거칠고, 작은 구멍이 많이 관찰되며, 불규칙한 결절이 있다. 한편, 뼈가 심하게 부식되어 유전자 분석은 쉽지 않았다. 추출한 콜라겐의 탄소 안정동위원소 분석으로 벼, 보리, 콩 등의 섭취량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고, 질소 안정동위원소 분석으로는 어패류 등의 단백질 섭취의 가능성도 확인했다. 익산은 질 좋은 화강암의 산지로 유명한데, 석실의 석재는 약 9km 떨어진 함열읍에서 채석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령이 400년 이상으로 알려진 棺材는 늦어도 7세기 전반 이전에 별목된 것을 가공한 것이다. 목관은 최고급 건축·가구재인 금송으로 제작했으며, 이번에 발견된 유골함은 잣나무 류의 판자로 만들었다. “필자는 이 보고서를 접하고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 동의할 수가 없다. 그 사유는?

첫째로 1327년 고려 충숙왕 때 도굴범이 우리 一家나 宗員도 아닌데 어떻게 나무상자를 준비하여 뼈를 주려서 상자에 담아 모셔놓았느냐 이 말이다. 도둑이 마음이 급

해서 보물이나 훔치려는데 정신이 있지 남의 조상에 예를 갖추려 리가 없지 않나? 도둑이 陵에 구멍을 뚫어놓고 상자를 준비하려고 왔다 갔다 할 마음의 여유가 있을 리 없다.

두 번째는 일본인 학자 야쓰이 세이이치는 장님도 아닌데 이 뼈 상자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많은 유골이 담겨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여자의 어금니만 있었다는 보고서를 낼 수가 있는가? 세 번째는 사람의 시신은 육탈이 되면 뼈가 큰대(大)나 1자 형태로 누워있어야 하거늘 죽은 자의 뼈가 어떻게 잣나무 판재로 만든 상자 안에 기어들어 갈 수가 있느냐 이 말이다. 이것은 후에 누가 장난을 쳤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네 번째는 2019년 2월 23일자 한겨레신문 토요 판에 보면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최완규 소장은 가톨릭 대 응용해부연구소에 의뢰해서 102개 뼈조각을 컴퓨터단층촬영으로 집중분석한 뒤 이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학자들 이라면 당연히 필자가 주장한 위의 세 가지 의문점을 짚어내서 심도 있게 토의해서 결론을 도출해 내야지 무조건 “백제 무왕이십니다. 예의를 갖추십시오.” 하는 최완규 소장의 지시 한마디에 모든 학자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다고 하는데 누구의 뼈인지도 모르고 예를 갖춘 학자들의 하는 짓이 처량하고 한심했다. 이것이 연구하는 학자들의 자세인가?

청주한씨 서원군과 대종회 한만교 감사가 이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래서 우리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발굴당사자 들에게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필자가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내 보일 내용은 거의 제시 했다고 생각되는데 독자 여러분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서슴없는 고견을 듣고 싶다.

길수회장, 落穂帖 제8집「별이 빛나는 밤」출간



까지 완간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제2회 서울 시우문학상과 2018년 한맥문화사 수필부문 대상을 수상하였고 서울시 시우문인회장과 한맥문화동인회 및 현대문예작가회 회원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一松 吉洙회장님의 정열과 노익장에 존경과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편집자)

근자열 원자래(近者悅 遠者來)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 온다” 논어(論語) 자로편(子路編)에 나오는 구절이다. 공자(孔子)가 살았던 2천500년 전, 당시 지도층이었던 제후를 비롯한 이튼바 정권 실세들은 공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혹은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정치에 관해 자주 묻곤 했는데, ‘근자열(近者悅), 원자래(遠者來)’는 초(楚)나라의 대부인 설공(葉公)이 던진 질문에 대한 공자의 답변에서 유래한 말이다.

초나라에 설공이라는 제후가 있었다.

그런데 이 나라에 문제가 있었으니, 백성들이 날마다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떠나니 인구가 줄어 들고, 세수가 줄어들어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었다.

초조해진 설공이 공자에게 물기를 ‘선생님, 날마다 백성들이 도망을 가니 천리장성을 쌓아서 막을까요?’ 잠시 생각하던 공자는 ‘근자열 원자래’ 이 여섯 글자를 남기고 떠났다 한다.

당시는 춘추전국시대라 백성들은 평판이 좋은 지도자를 찾아다니면서 이합집산을 이루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오늘날과 달리 당시에는 국경 개념이 뚜렷하지 않아서 비교적 손쉽게 이주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연유로 백성들은 능력 있는 지도자를 좇아서 개별적 혹은 집단을 이루어서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옮겨 다니곤 했다. 그리고 이때 백성들의 평가기준이 바로 ‘근자열, 원자래’였던 것이다. 즉, 군주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그 소문을 듣고 먼 곳에서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뜻이다. 이로써 그는 성공한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명성을 널리 떨칠 수 있었다.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라”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흔히 가까운 사람은 제쳐두고 남에게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내 부모, 배우자, 자녀, 상사, 동료, 부하직원, 친구 등 허물없는 이들에게 먼저 잘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는 ‘근자열 원자래 (近者悅遠者來)’는 정치, 기업경영, 가정사, 친구관계를 망라한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근자열, 원자래’는 비단 정치인뿐 아니라 누구나 귀담아 들어야 하는 말이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국가와 지역, 단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분들이 깊이 새겨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 사람 찾는 것도 좋지만 있는 사람을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소중한 분들에게 먼저 배려하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중친회 계좌번호 안내

◆회비·헌성금·종보대

- 국민은행 009901-04-016841
예금주 청주한씨중앙중친회

◆인터넷족보 수단금

- 국민은행 009901-04-016854
예금주 청주한씨중앙중친회

◆무강왕릉수호기금

- 국민은행 009902-04-323878
예금주 한추태
- 국민은행 624201-04-487233
예금주 무강왕릉수호법대책위원회

운영회비(5~8월) 단위:원	
이름	금액
추태 회장(중앙회장)	3,000,000
갑수 명예회장	1,000,000
규백 부회장(회양공파 회장)	1,000,000
석희 부회장(문양공파 회장)	1,000,000
상량 부회장(참판공파 회장)	1,000,000
광전 부회장(경기도 회장)	500,000
근우 부회장(세마공노산종중 회장)	500,000
동석 부회장(전교공파 회장)	500,000
태락 부회장(대구경북 회장)	500,000
천식 부회장(인천시 회장)	500,000
상영 자문위원(경기 의정부시)	300,000
달섭 자문위원(서울 동작구)	200,000
동협 자문위원(경기 평택시)	200,000
익수 자문위원(경기 고양시)	200,000
상남 겸임이사(강북도봉구 회장)	200,000
상옥 겸임이사(고창군 회장)	200,000
태호 겸임이사(인천 중구)	200,000
갑창 운영위원(전북 전주시)	100,000
경석 겸임이사(서울 강남구)	100,000
규아 운영위원(경기 김포시)	100,000
기덕 운영위원(강원 춘천시)	100,000
기성 겸임이사(서울 종로구)	100,000
기형 운영위원(경기 안산시)	100,000
덕원 운영위원(진주시 회장)	100,000
상렬 겸임이사(서울 도봉구)	100,000
상분 운영위원(경기 안양시)	100,000
세동 겸임이사(대전 서구)	100,000
영섭 겸임이사(경기 김포시)	100,000
정수 운영위원(경기 용인시)	100,000
종원 겸임이사(인천 계양구)	100,000
철동 운영위원(충남 당진시)	100,000
태진 겸임이사(경북 구미시)	100,000
합 계	12,500,000

개인정보비(5~8월) 단위:원	
이름	금액
광세(서울 송파구)	100,000
동권 겸임이사(경기 군포시)	100,000
재선(경기 평택시)	100,000
종현(충남 금산군)	100,000
창영(경남 남해군)	100,000
광석(대구 달성군)	85,000
국렬(전북 완주군)	50,000
달섭 자문위원(서울 동작구)	50,000
대봉(울산 중구)	50,000
도교(경북 상주시)	50,000
민희(충남 청양군)	50,000
상덕(강원 평창군)	50,000
상옥 겸임이사(고창군 회장)	50,000
상호(인천 부평구)	50,000
석섭(전남 고흥군)	50,000
성환(경남 밀양시)	50,000
웅섭(경기 성남시)	50,000
원교(서울 송파구)	50,000
정희(서울 금천구)	50,000
창우(서울 송파구)	50,000
태진 겸임이사(경북 구미시)	50,000
기대(경기 이천시)	40,000
기석(서울 노원구)	30,000
광수(대전 서구)	30,000
남희(충남 청양군)	30,000
대삼(제주도 제주시)	30,000
상복(경기 안성시)	30,000
상훈(충남 공주시)	30,000
영상(경기 양평군)	30,000
인식(서울 동작구)	30,000
장석 운영위원(충남 당진시)	30,000
장선(전남 보성군)	30,000
정웅(서울 송파구)	30,000
정웅(전남 보성군)	30,000
춘부(서울 중구)	30,000
태락 부회장(대구경북 회장)	30,000

이름	금액
태식(경기 안양시)	30,000
홍교(대구 남구)	30,000
갑준(서울 성북구)	20,000
강현(충남 아산시)	20,000
경남(부산 서구)	20,000
관영(경기 용인시)	20,000
광전 부회장(경기도 회장)	20,000
규범(경기 고양시)	20,000
규상(경기 김포시)	20,000
규성(인천 계양구)	20,000
기수(전북 임실군)	20,000
기준(강원 강릉시)	20,000
기준(경기 부천시)	20,000
기준(서울 성동구)	20,000
기창 겸임이사(충남 당진시)	20,000
대규(경기 부천시)	20,000
덕수(서울 금천구)	20,000
도수(충남 청양군)	20,000
동협 자문위원(경기 평택시)	20,000
두경(전남 나주시)	20,000
만석(서울 중랑구)	20,000
만정(경기 고양시)	20,000
명교(서울 중구)	20,000
명석(서울 금천구)	20,000
범수(강원 춘천시)	20,000
병덕(서울 강북구)	20,000
복원(서울 영등포구)	20,000
봉수(광주 남구)	20,000
상갑(서울 강동구)	20,000
상곤(경북 구미시)	20,000
상덕(서울 서대문구)	20,000
상돈(충남 청양군)	20,000
상분 운영위원(경기 안양시)	20,000
상진(충남 태안군)	20,000
상철(경기 양주시)	20,000
상협(경기 시흥시)	20,000
석구 부회장(문정공파 회장)	20,000
성명, 주소불명	20,000
성수(서울 광진구)	20,000
순례(서울 관악구)	20,000
승옥(광주 북구)	20,000
양석(충남 당진시)	20,000
양섭(전남 화순군)	20,000
용관(서울 송파구)	20,000
윤기(서울 강남구)	20,000
인우(충남 당진시)	20,000
재관(서울 성동구)	20,000
재술(전북 김제시)	20,000
재언(서울 성동구)	20,000
정수(서울 광진구)	20,000
종철(전남 강진군)	20,000
진섭(광주 북구)	20,000
철수(경기 시흥시)	20,000
춘섭 겸임이사(영흥공파 회장)	20,000
충호(강원 원주시)	20,000
태문(경기 수원시)	20,000
태수(경남 합천군)	20,000
훈탁(서울 성동구)	20,000
홍수(충남 서천군)	20,000
희수(서울 동작구)	20,000
희왕(전북 군산시)	20,000
광석(대구 달성군)	15,000
이규(전북 전주시)	10,000
합 계	3,060,000

단체정보비(5~8월) 단위:원	
이름	금액
인천시종친회	300,000
세마공노산종중	300,000
전주시종친회(귀성)	200,000
진주시종친회	200,000
송탄종친회(수동)	100,000
합 계	1,100,000

연기현감공(15世 휘 琹) 묘비 수립 및 제막



참판공(14世 諱 繼善)하 연기현감공종 중(회장 규동)은 지난 6월 28일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산125 소재 선영에서 규동 회장을 비롯 상량회장, 기천회장 등 후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기현감공 휘 정(琹)의 묘비 수립 및 제막행사를 엄숙하고 경건하게 행하였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묘비를 수립한 연기현감공 휘 정(琹)은 참판공(휘 계선)의 장남으로 통훈대부 연기현감(通訓大夫 燕岐縣監)을 지내셨으며, 배위는 숙인조계정씨로 목사(牧使) 윤도(允悼)의 따님이다.

청한산악회 제23기 정기총회

전년도 결산(안) 승인 및 삼랑회장 재선임

청한산악회(회장 삼랑)는 지난 7월 26일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계절적인 여건과 사회적인 정황을 감안 경기도 여주 흥천면소재 흥천강변에서 202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기된 정기총회를 통해 전년도 결산(안) 승인에 이어 임기가 만료된 삼랑회장과 감사(호석, 창근), 부회장(달섭, 대석, 갑진) 등의 임원을 연임 또는 새로이 선임하였다.

삼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조님의 은덕으로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는 회원들과 함께 화기애애한 가운데 안전산행을 이어감에 감사함을 전하고,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회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하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지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함께 뜻을 모으고 적극적인 홍보와 성원



을 통해 중앙회 종사운영과 발전에도 기여하는 산악회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독려하는 한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 특히 건강관리에 유념하고 어려운 시국을 슬기롭게 대처해서 극복해 나가자는 격려와 함께 복달임 보양음식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광전, 도영, 상분일가 등 함께해주신 회원분들께 감사를 전했다.

장학기금 납부내역(5~8월) 단위:원			
고유번호	이름	금액	누계
1611	상호(인천 부평구)	100,000	2,300,000
834	기영(강원 강릉시)	20,000	820,000
	합 계	120,000	

무강원릉수호대책위원회 헌성금(2020년 8월 현재) 단위:원	
이름	금액
추태 중앙회장	10,000,000
태락(추진위원장)	6,800,000
충북도총친회(회장 장훈)	2,000,000
기천 자문위원(인천 동구)	1,000,000
대전총친회(회장 갑수)	1,000,000
부산시총친회(회장 동경)	1,000,000
정식(제주도 회장)	1,000,000
충의공파종중(회장 찬규)	1,000,000
한삼랑(청한산악회 회장)	1,000,000
회양공파종중(회장 규백)	1,000,000
효동 고문(대전 중구)	1,000,000

이름	금액
문양공파종중(회장 석희)	600,000
문간공파종중(회장 동수)	500,000
절도공경산종중(효근)	500,000
참의공하총지공파종중(회장 근준)	500,000
참판공파종중(회장 상량)	500,000
현령공파종중(회장 기일)	500,000
회양공파종중(회장 규백)	500,000
인천시종친회(회장 천식)	300,000
참의공파안산종중	300,000
청한예학회	300,000
판관공파종중(회장 연동)	300,000
팔봉총친회(회장 광운)	200,000
강, 종수(참의공파안산종중)	100,000
참의공파안산종중(강)	100,000
강락 자문위원(대구 서구)	100,000
만교(장도공파회장)	100,000
삼재관리위원회(회장 철호)	100,000
준석 자문위원(서울 동작구)	100,000
창희(참판공파)	100,000
합 계	32,500,000

만해축전 '생명과 공존' 주제로 4일간 개최

만해마을 및 인제 일원에서 만해대상 시상식 등 다채로운 행사로

청주한문의 위대한 선각자, 한국 근대사의 어둠을 밝힌 선승이자 위대한 시인이며 혁명가였던 만해(萬海) 한용운(韓龍雲 · 1879~1944) 선사를 기리는 2020 만해축전이 '생명과 공존'을 주제로 지난 8월 10일부터 4일간 만해마을 및 인제군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만해축전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강원도, 인제군, 동국대학교, 조선일보, (재)만해사상실천선양회에서 후원, 올해 22회째를 맞는 만해축전은 한국 근현대사의 대표적 독립운동가이자 사상가인 만해(萬海)의 사상과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한 축제로 17여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해 학술세미나, 서예대전, 청소년 백일장, 청소년캠프, 문화·예술·체육행사 등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다.

만해축전의 백미로 만해의 생명·평화·겨레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제정된 만해대상은 '평화', '실천', '문예' 세 부문에 걸쳐 빼어난 업적을 거둔 인물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세계 각국의 국가원수들과 노벨상 수상자, 국제기구의 대표 등 저명인사들에

게 시상될 만큼 국제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올해 평화대상은 태국 아속공동체 창시자 포티락 스님이 수상했으며, 실천대상은 산악인 엄홍길씨와 계명대 대구동산병원(병원장 서영성), 문예대상은 소설가 김주영씨와 시인 신달자씨가 공동 수상했다.

만해평화대상을 수상한 포티락 스님을 대신해 상을 받은 아속공동체 켄과 선생은 "50여 년 동안 실제 삶의 현장에서 팔정도를 구현하기 위해 인생을 바쳤다"며 "현대 사회를 위해 삶의 대안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제가 자랑스럽게 만들어낸 아속공동체의 신성함을 경험하고 증명하기 위해 이 기회를 빌려 모든 분들을 초대하고 싶다"고 소감을 대신 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윤성기 동국대 총장, 최상기 인제군수, 주호영 국회의원 등 3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지역주민, 대학, 불교인,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소통하는 행사로 펼쳐졌다.

충남 홍성에서 태어난 만해는 선사, 시인, 독립운동가로 일생을 조국독립과 겨레사랑으로 일관, 20대 중반에 백담사



로 출가 승려가 된 후 한국불교의 개혁과 대중화를 주창한 「조선불교유신론」을 펴내는 한편 시·소설 등의 창작활동을 통해 사회개혁과 정신개혁을 주도하면서 1926년 88편의 시를 모은 그 유명한 시집 「님의 침묵」을 출판, 생명사상·사랑의 철학을 겨레의 가슴에 심어주었다. 3·1운동 때는 민족대표 33인의 한사람

으로 참여해 독립운동가로 활약하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했으나 애석하게도 조국의 광복 1년 전인 1944년 6월 29일 서울 성북동 심우장(尋牛莊)에서 별세했다. 비록 만해는 갔으나 그가 별세한지 76년이 되는 오늘날에도 그의 자유사상, 평등사상, 민족사상, 평화사상은 여전히 소중한 민족사적 덕목이 되고 있다.

한용운선사 탄신일 추모다례제 봉행

홍성문화원, 생가지 일원 만해사에서



지난 8월 29일 승려 시인이자 조국독립에 앞장섰던 만해 한용운선사의 탄신일을 맞아 충남 홍성군 결성면 만해 생가지 일원 만해사에서 제25회 만해 추모다례제를 봉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석인원을 대폭 감축한 가운데 홍성문화원 주관으로 봉행된 추모다례제는 홍성군립무용단의 진혼무를 시작으로 수석사 정경스님의 행장소개와 주경스님의 축원에 이어 헌향 헌다를 올린 후 홍성군수의 만해 추모사와 한용운선사기념사업회 이사장 웅산 크스님의 법어에 이어 만해 시 낭송과 참석한 내빈 헌화의 순으로 봉행되었다.

유환동 홍성문화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만해추모다례제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슬기롭게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용돈을 모아 선조묘소를 성역정화한 공석일가



안양공(휘 終孫)의 7세손인 성군생원 휘 성오(省吾, 21世)의 묘소가 비석은 6.25동란으로 인한 총탄과 오랜 풍상으로 마모되었

고 묘 봉분은 멧돼지가 훼손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지난해 세향 묘사 시 훼손된 묘소를 보게 된 휘 성오의 9세손인 공석(空錫, 30世, 1936년 병자생·사진)일가는 너무나 서글프다 하시며 자녀들이 보내준 용돈을 모아 저축한 거금 천만원을 선뜻 기증하여 지난 청명일에 묘비, 봉분, 상석, 돌레석, 망주석 등 묘역 일체를 성역정화(사진 우측) 하였다.

이는 송조효친사상이 희박해져 가는

요즘 세대에 후손들이 볼 때 타의 귀감이 되고 고마운 분이기예 종보를 통해 미담 사례를 널리 전하고자 한다.

(임실군 남부3면 종친회장 한기수)



운영회비 및 종보구독료 납부 안내

존경하는 임원 및 일가여러분!

코로나19의 감염 및 확산이 지속되고 태풍 및 폭우 등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기입니다만 송구한 마음으로 운영회비 및 종보구독료 납입을 부탁드립니다.

임원 및 일가여러분께서 납부해 주시는 운영회비와 종보구독료는 청주한문 100만 종친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꼭 필요한 중앙종친회의 운영 재원입니다. 임원 및 일가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09901-04-016841
(예금주 청주한씨중앙종친회)
- 종보에 첨부된 지로용지 이용
(입금자 성명 및 주소 등 기재)
- 문 의 : 중앙종친회 02) 720-6370/1

청주한씨중앙종친회

〈중앙종친회장 동정〉

고성군종친회 정기총회 참석 및 격려

종사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 등 논의



고성군종친회 정기총회 (추태회장의 축사)

중앙종친회 추태회장은 지난 6월 27일 경남 고성군종친회(회장 삼렬)의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종원분들을 격려하고 종사 현안과 발전을 위한 의견과 환담을 나누었다.

그동안 중앙회 종사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함을 전하고 특히 중앙회에서 준비 중인 뿌리와 인명록 발간에 많은 일가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으로 독려,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가정연합 경기도교구장 예방 및 환담

인명록 및 광고게재 등 현안 논의



좌로부터 이영진목사, 추태회장, 이승일교구장

중앙종친회 추태회장은 지난 7월 26일 가정연합 분당지회를 방문, 이승일경기도교구장을 예방하고 분당지부이영진목사 등 관계자와 종사 현안 및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와 환담을 나누었다.

이 자리를 통해 금번에 발간을 추진 중

인 뿌리와 인명록에 한학자종재와 관련광고를 게재하기로 협의 결정하였다.

추태회장은 그동안 종사운영과 발전을 위한 성원에 감사함을 전하고 향후로도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하였다.

독립운동가·애국지사 한도원(韓道源) (1906년 ~ 1984년)

「요약」

일제강점기 병인의용대, 맹혈단을 조직하여 활동한 독립운동가.

「경력」

상해전차회사 차장, 병인의용대원, 맹혈단원

「생애 및 활동사항」

일명 이국화(李國華)·왕소산(王少山). 평안남도 대동 출신. 1925년 평양 숭실중학교(崇實中學校)를 중퇴하고 상해(上海)로 건너가 그 곳에서 상해전차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박창세(朴昌世)·강창제(姜昌濟) 등과 함께 항일무장단체인 병인의용대(丙寅義勇隊)를 조직, 활동하였다.

1931년 이봉창(李奉昌)에게 무기와 자금을 제공하여 일본 동경(東京)에서 의거를 일으키도록 도왔고, 1934년 김구(金九)의 밀령으로 상해일본총영사관 후지이(藤井) 경부보의 밀정으로 일하면서 일제의 정보를 탐지하여 김구에게 전보하였다.

그 뒤 후지이의 독립운동자의 동정을 조사,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난징[南京]의 중국중앙군관학교에 입교하여 훈련을 받다가 중퇴하였다. 1936년 김동우(金東宇)·오면직(吳冕植) 등과 함께 항일비밀결사단 맹혈단(盟血團)을 조직하였다.

일제기관의 파괴, 밀정의 처단, 일제요인 살해 등의 활동을 하다가 붙잡혀 국내로 이송되었다. 1937년 6월 해주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상훈과 추모」

1963년 대통령표창, 1977년 건국포장을 받았고, 1990년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최근 한도원애국지사의 딸 한순옥여사가 TV매체를 통해 백범 김구선생이 전한 편지를 공개하며 전한 아버지와 김구선생의 독립운동 이야기가 많은 관심으로 재조명 되었다. 한순옥여사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몰랐고 아버지가 없는 줄 알고 살았다. “돌아가실 때 비석에 일하신 거 전부 나왔더라. 그래서 알았다”고 밝히며 “그래도 나라 위해서 한 거니까 감사할 수밖에” 라고 전했다.

한순옥여사는 아버지 한도원지사와 김구선생의 친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세울 당시 김구선생이 여러 동료들의 집을 떠돌며 살았으며 “그 얘기 들은 게 생각난다. 침대에 새 침구를 해줬다. 아무 때라도 들어와서



한순옥여사(상단 우측)와 김구선생의 편지(하단) (사진출처 tvN)

주무시라고”라며 “우리 집에도 자주 오셨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사람들이 가끔씩 잡으러 온다. 그러면 언제 도망갔는지 모르게 텅 비어 있다”며 “식구들은 ‘이제 잡혀갔구나’ 생각했다. 다 뒤져봐도 없으니깐 일본 애들이 갔다. 그리고 나니까 김구 선생이 숙 나와서 잡혀간 줄 알았다고 하니까 ‘내가 왜 잡혀가냐’ 라고 했다”고 밝혔다.

한순옥여사는 김구선생이 자신을 많이 예뻐했다며 “다른 분들한테는 그냥 이름 들만 써서 편지를 주셨는데 저는 세손에게 준다고 했다. 세손은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로 가질라는 뜻이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순옥여사는 이봉창의사의 폭탄 의거에 가족이 협조했다고 밝혔다. 여사는 “김구 선생님이 폭탄을 도시락으로 만들어 유모차에다 태워서 갖다 주라고 했다. 어머니가 유모차에다가 그 폭탄을 넣고 그 위에다 나를 넣고 가셨다. 그때가 세상 정도 됐을 때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구선생님이 그때 내가 갖고 간 도시락이 그 도시락이라고, 그 사람한테 던진 게 그 도시락이라고 하더라”며 “김구 선생님이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하지 않나. 그거 다 우리 어머니한테 맡겨 놓았다가 필요하면 나중에 갖다 쓰셨다고 했다”고 김구 선생이 자신의 부모님을 많이 신뢰하고 있었음을 밝혔다.

한순옥여사는 김구선생에게 뒤늦은 답장으로 “선생님, 어떠세요? 천국에 가셨는데 얼마나 행복하세요? 많이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저도 열심히 살게요. 늘 열심히 살아서 좋은 사람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눈물지었다.

청주한씨 부리와 인명록 발간 및 게재 신청 안내

중앙종친회 주관 「2020년도 청주한씨 뿌리와 인명록」 발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청주한문의 전종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종현님의 인적사항을 기록으로 남겨 소장하고 자손에게 전해줄 수 있는 보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위대한 성씨! 삼한갑족·명문거족!

우리 청주한씨의 연원과 세계, 시조부군을 비롯한 선조님과 종파문중의 중시조 유사와 유물, 유적 및 일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록과 사진으로 편집하고 한문의 명예를 이어가는 종원분들의 인적사항을 게재(종파문중별 또는 지역별, 선택)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투자는 언제 어디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와 의미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문중과 나와 후손을 위해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종원분들께도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와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책은 마음의 양식이고 생활의 지침서가 됩니다.

본 인명록을 통해 청주한문 후손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 및 인성 정립에 기여하고, 일가 간 소통의 수단으로 삼아 화합문명에 일조하면서 문중의 발전·계승에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게재신청 및 구입비용 : 20,000 ~ 30,000원 내외

제출기한 : 10월 15일까지 (중앙회 또는 종파문중, 광역시도에서 취합 송부)

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종친회로 문의바랍니다.

청주한씨중앙종친회